



한국사진방송 창립9주년 특별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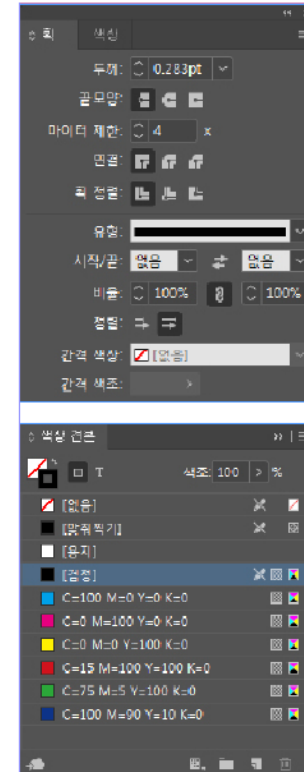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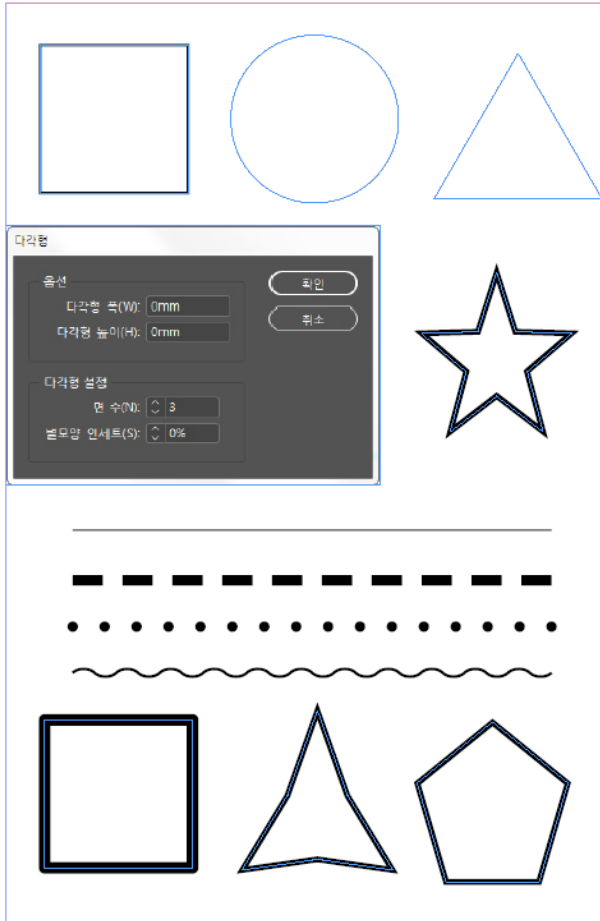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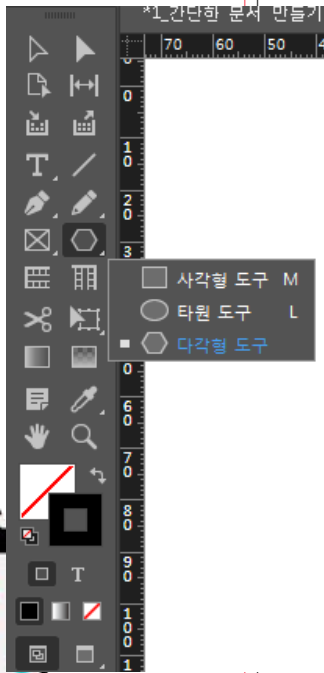


# 표 내 사진집은 내가 만든다

## 2일차 학습내용(도형과 컬러, 마스터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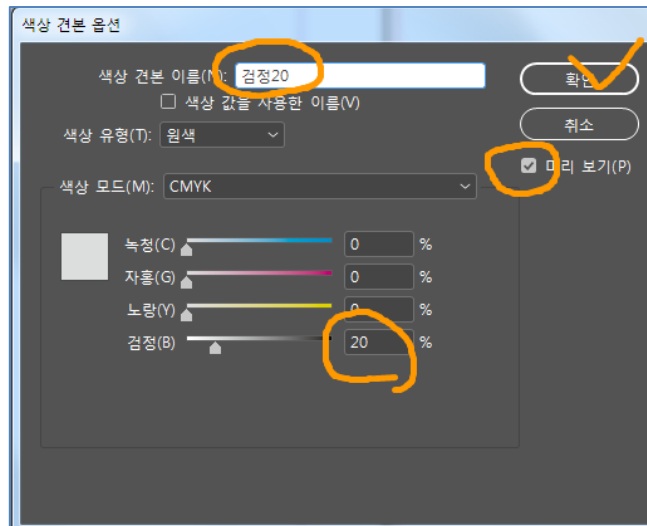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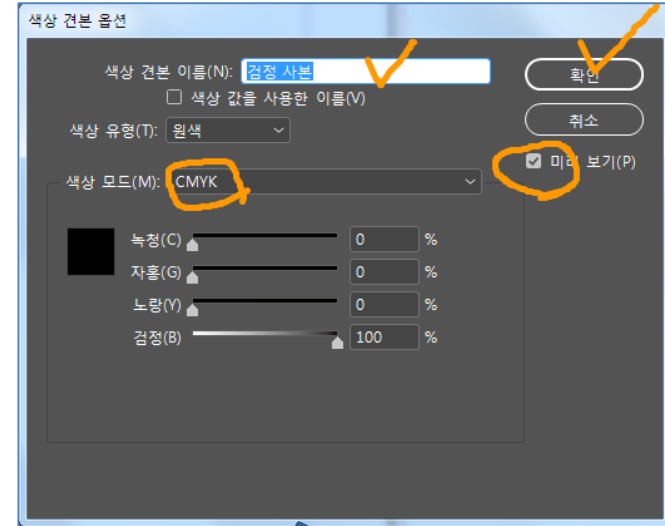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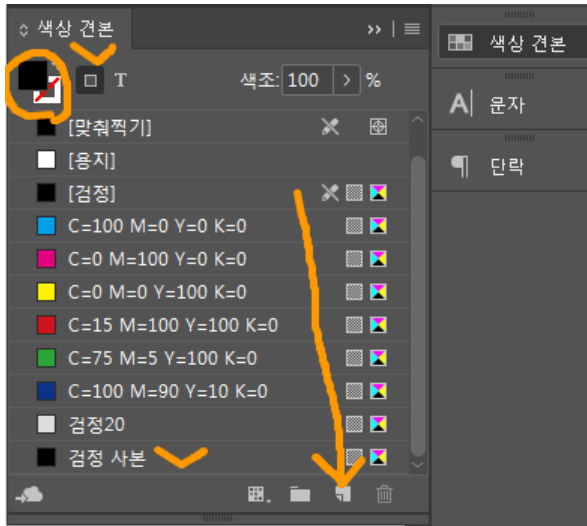
- 여러가지 도형 그리기
- 컬러의 이해, 컬러 등록
- 그라디언트 색상 만들고, 등록하기
- 문서작성하기, 문서의 간단 편집, 배경색 칠하기
- 페이지 패널 활용, 페이지 재편성
- 페이지 크기 재설정 및 스프레드 구성
- 마스터 기능을 이용하여 페이지 번호 넣기
- 페이지 번호 변경 옵션 및 수정

# 여러가지 도형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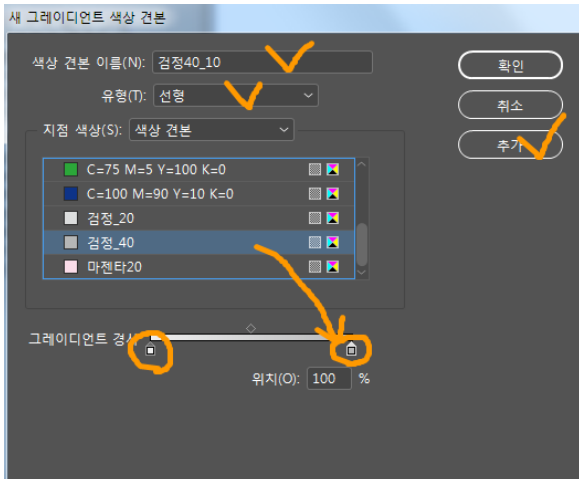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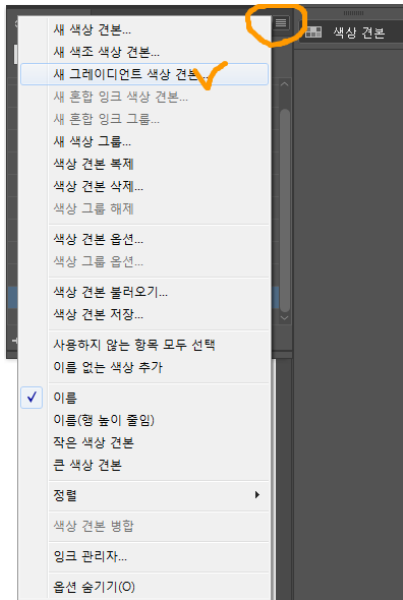


- **Shift + 드래그 :** 정사각형, 정원, 가로세로 비율 같게
- **Alt + 드래그 :** 도형복사
- **Alt + Shift +드래그 :** 도형 직선으로 복사

# 컬러 색상 만들고, 등록하기



# 그라디언트 색상 만들고, 등록하기



## ● 역광선의 미학

서양에서는 렘브란트 광선 (Rembrandt Lighting)을 매우 중요시한다. 일반적인 인물사진이나 세부묘사가 잘 살아 있는 작품이라면 사진에서도 역시 이 광선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가족 사진을 촬영하여 벽에 걸어놓을 목격이라면 이 광선이 최고의 재광일 것이다. 어쩌면 그냥 평범한 순광 역시 아주 좋은 광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진은 이러한 가족사진과 같은 목격만이 다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진에 있어서 역광선은 매우 중요한 광선이다.

필자의 예술관 중엔 엷박자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요컨대 같이 달려서는 일등이 도저히 자신 없지만 혼자 달리거나 남들과 다른 길을 달린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란 요지의 생각이다. 역광선의 중요성도 우선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태양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향해 우뚝 서서 태양을 맞받아친다. 이 상상만으로도 이미 강인한 그 무엇이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광선을 이용한 시각적인 요소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이 광선을 사용한 빛을 받은 하이라이트 부분과 빛을 받지 않은 새도우 부분의 노출차를 이용하여 배경을 정리하는데 있다.

필자의 중요한 지론 중에는 단순명쾌 간단명료 (Lessis more: 단순한 것이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는 항상 단순하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를 위한 사진의 기술적 요소는 '배경자의 전쟁'이다.

사진술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전쟁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 배경의 정리다. 배경

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척 많다. 그중 하나가 역광선을 이용하여 배경을 어둡게 정리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이 형식과 잘 어울리는 사진에 있어서 최고의 미덕인 "사진은 벨벳이다." 라는 금언에 완전히 부합된다.

필자는 '메타포에 의한 내러티브'를 중시한다. 메타포란 은유나 상징을 이야기한다. 내러티브는 '스토리텔링' 보다 더 포괄적인 작가의 주장을 이야기한다. 대상 또는 상황의 일부분만으로 나머지 이야기(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유추시킬 수 있는 힘이 사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 문서 입력 및 간단 편집

## ● 역광선의 미학

서양에서는 램브란트 광선 (Rembrandt Lighting)을 매우 중요시한다. 일반적인 인물 사진이나 세부묘사가 잘 살아 있는 작품이라던 사진에서도 역시 이 광선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가족 사진은 촬영하여 벽에 걸어놓을 목적이 라면 이 광선이 최고의 채광일 것이다. 어쩌면 그냥 평범한 순광 역시 아주 좋은 광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진은 이러한 가족사진과 같은 목적만이 다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진에 있어서 역광선은 매우 중요한 광선이다.

필자의 예술관 중엔 엇박자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요컨대 같이 달려서는 일등이 도저히 자신 없지만 혼자 달리거나 남들과 다른 길을 달린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란 요지의 생각이다. 역광선의 중요성도 우선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태양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향해 우뚝 서서 태양을 맞받아 친다. 이 상상만으로도 이미 강인한 그 무엇이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광선을 이용한 시각적인 요소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이 광선을 사용하면 빛을 받은 하이라이트 부분과 빛을 받지 않은 섀도우 부분의 노출차를 이용하여 배경을 정리하는데 있다.

필자의 중요한 지론 중에는 단순 명쾌 간단명료 (Lessis more: 단순한 것이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는 항상 단순하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들 위한 사진의 기술적 요소는 '배경과의 전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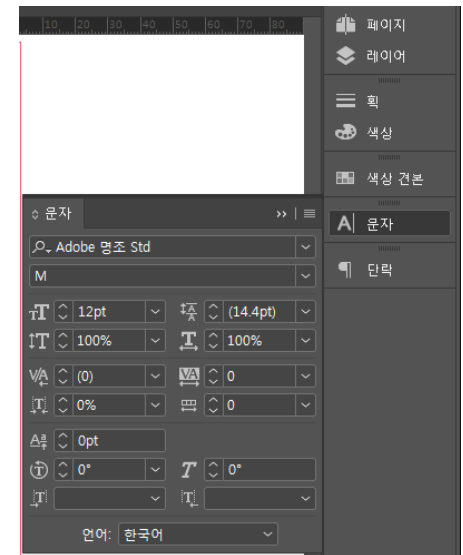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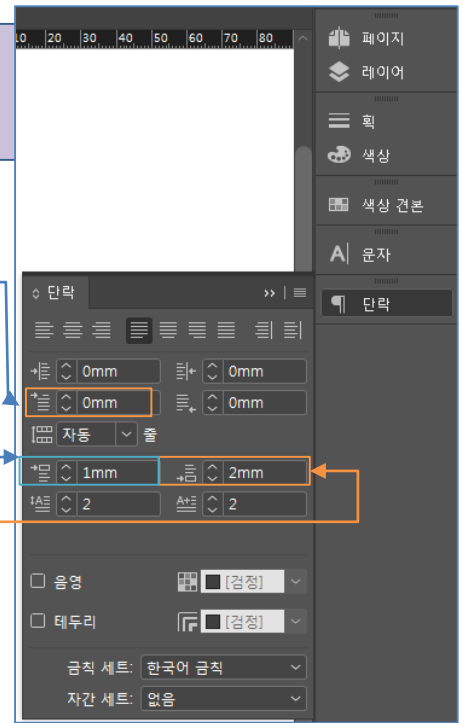
사진술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전쟁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 배경의 정리다. 배경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척 많다. 그중 하나가 역광선을 이용하여 배경을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이 형식과 철학은 사진에 있어서 최고의 미덕인 "사진은 별 썬이다." 라는 금언에 완전히 부합된다.

필자는 '메타포에 의한 내러티브'를 중시한다. 메타포란 은유나 상장을 이야기한다. 내러티브는 '스토리텔링'보다 더 포괄적인 작가의 주장을 이야기한다. 대상 또는 상황의 일부분만으로 나머지 이야기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유추시킬 수 있는 힘이 사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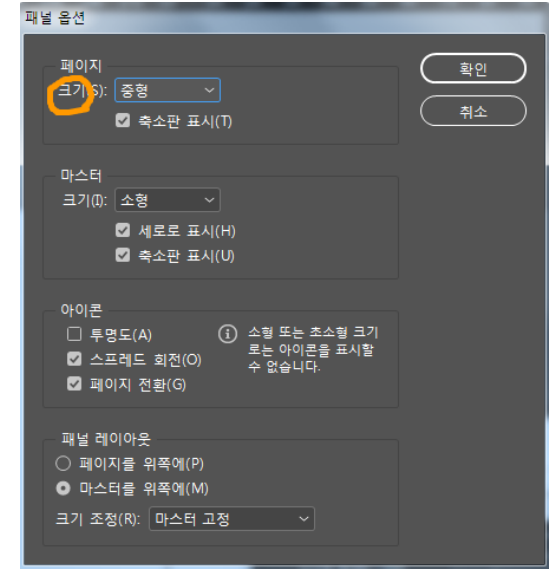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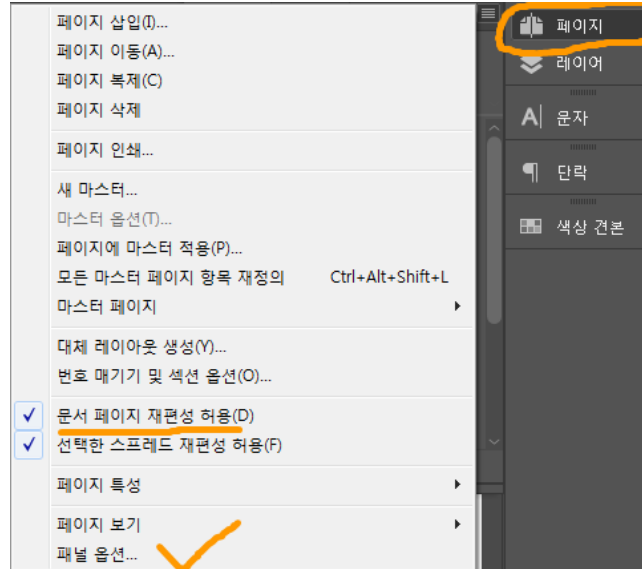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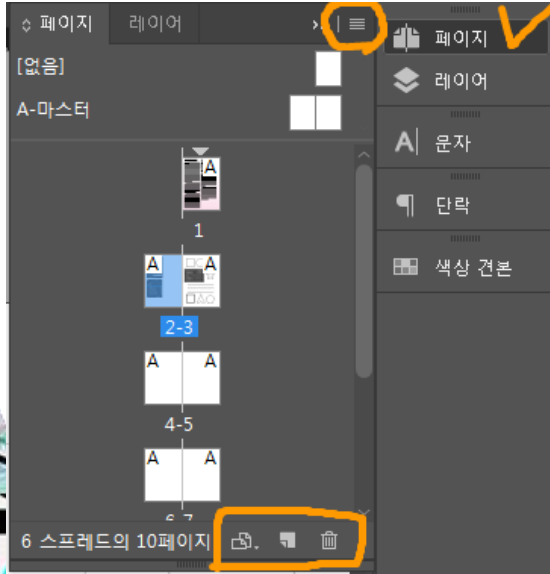
척줄 들여쓰기

이전 공백

이후 공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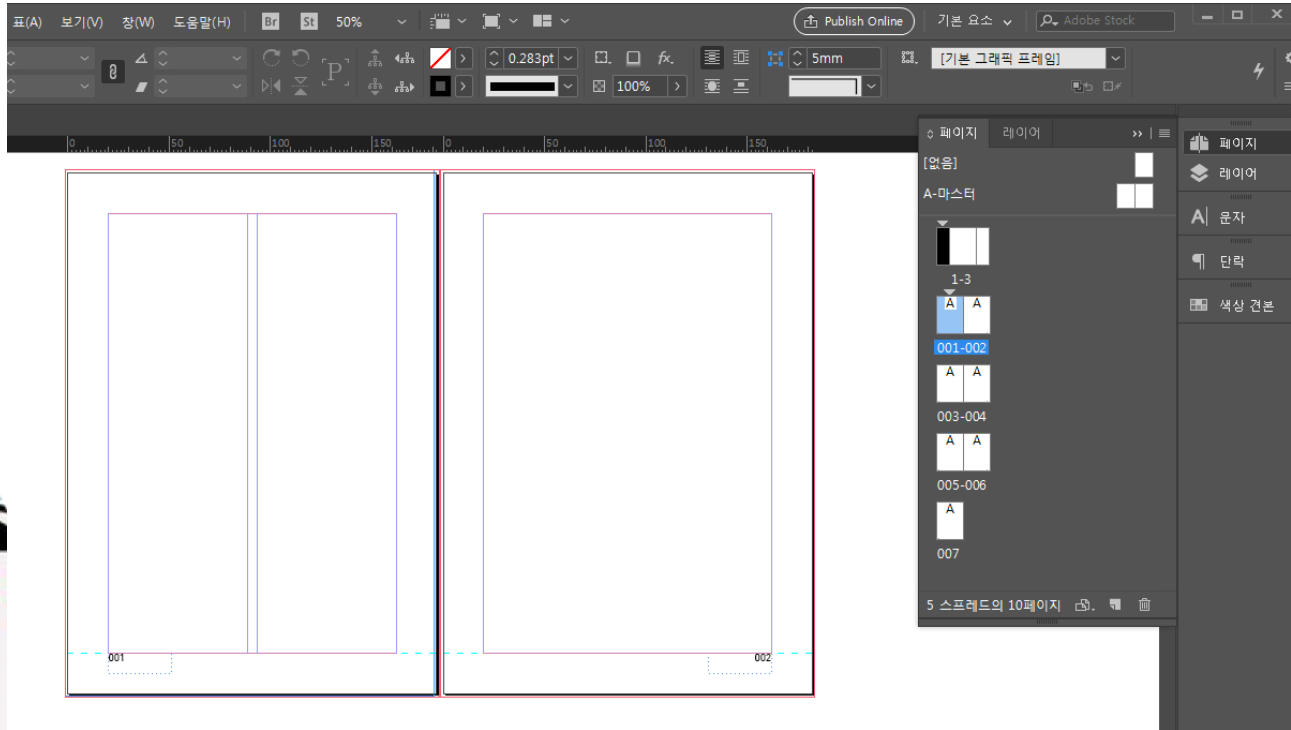
# 페이지 패널 & 페이지구성



- 페이지 이동 : 드래그
- 좌측 하단의 페이지 번호를 선택하여 빠른 이동 가능
- 페이지 복제 : 드래그 > 새 페이지 만들기
- 빈 페이지 추가 : 하단의 새 페이지 만들기 클릭
- 짝수페이지는 좌측페이지로 구성
- 페이지 선택은 Ctrl, Shift 키로 복수 페이지 선택
- 패널 옵션 : 페이지 크기 조정

# 페이지 재구성, 스프레드 만들기, 페이지크기

# 마스터 기능을 이용하여 페이지 번호 넣기



마스터 : 꾸미고 작업한 대로 공통으로 여러 페이지에 적용 할 수 있는 기능

## 〈마스터 기능을 이용하여 페이지 번호 넣기〉

1. A-마스터 좌측을 더블클릭하면 마스터 편집화면이 나타난다.
2.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넣기 위해.. 눈금자 기능을 이용해 안내선을 배치한다.
3. 눈금자를 드래그하여 아래로 안내선을 끌어내린다. (좌/우페이지)
4. 문자도구를 드래그하여 페이지가 들어갈 크기로 텍스트 박스를 만든다.
5. 문자메뉴>특수문자삽입>표시자>현재 페이지번호 클릭> 텍스트 박스에 A로 입력된다.
6. 글자 옵션에서 A문자를 편집한다. 글자색상, 크기, 폰트
7. 좌측에 만들었던 페이지번호를 Alt + 드래그하여 오른쪽 페이지에 복사한다.(오른쪽 정렬)
8.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숨기려면> 마스터 영역의 '없음'페이를 해당 페이지로 드래그한다.



# 페이지 번호 변경 옵션 및 수정

The image illustrates the process of setting page and section numbering in Adobe InDesign. It shows the menu path, the dialog box settings, and the resulting page layout.

시작하는 페이지를 선택 후 > 우클릭> 번호 매기기 및 섹션 옵션  
 페이지 번호 매기기 시작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스타일에서는 여러가지 페이지 형태로 지정이 가능하다.

# 간단한 책 만들기의 '문자, 문단' 속성

**● 역광선의 미학**

서양에서는 램브란트 광선 (Rembrandt Lighting)을 매우 중요시한다. 일반적인 인물사진이나 세부묘사가 잘 살아 있는 작품이라면 사진에서도 역시 이 광선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가족 사진을 촬영하여 벽에 걸어놓을 목적이려면 이 광선이 최고의 채광일 것이다. 어찌된 그냥 평범한 순광 역시 아주 좋은 광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진은 이러한 가족사진과 같은 목적만이 다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진에 있어서 역광선은 매우 중요한 광선이다.

필자의 예술관 중엔 엷박자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요컨대 같이 달려서는 일등이 도저히 자신 없지만 혼자 달리거나 남들과 다른 길을 달린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란 요지의 생각이다. 역광선의 중요성도 우선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태양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향해 우뚝 서서 태양을 맞아온다. 이 상상만으로도 이미 강한 그 무엇이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광선을 이용한 시각적인 요소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이 광선을 사용함에 빛을 받은 하이라이트 부분과 빛을 받지 않은 섀도우 부분의 노출차를 이용하여 배경을 정리하는데 있다.

필자의 중요한 지론 중에는 단순명쾌 간단명료(Less is more: 단순한 것이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는 항상 단순하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를 위한 사진의 기술적 요소는 '배경과의 전쟁'이다.

사진술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전쟁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 배경을 정리다. 배경을 정리하는 방법은